자비나눔 기금은 '아름다운동행' 대표적 공익기부재단 자리매김

국내 '이웃돕기' 비롯해 네팔 아프리카 해외구호성금 몰려
17일 하루 5곳 1억1000만원

봉선사가 네팔 구호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18일 추가로 자비나눔기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최초'를 넘어 '대표' 공익기부재단으로 우뚝 서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만 해도 동국대(총장 보광스님)가 6000만원,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회주 선묵스님)가 2000만원, 부산 화엄회(회장 현수스님)가 1500만원, 청련암(주지 종찬스님)이 500만원,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지난달 3억원에 이어 1억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접견실을 찾았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은 오후 내 자비 나눔 실천을 위해 접견실을 찾은 사람들을 일일이 직접 맞았다. 전달식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당초 50만 달러 정도 지원을 예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줘 현재 15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하게 모아준 기금인 만큼 아름다운동행과 의논해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뜻 깊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7일에는 중앙승가대(총장 원행스님)가 1200여만원을, 15일에는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스님)가 4000여만원을 네팔 구호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이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후원하는 손길도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영화사(주지 평중스님)가 1000만원을, 1일에는 조계사 신도들의 신행단체인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단장 박경숙)이 최효임 작가의 '문인화 초대전' 수익금으로 마련한 1500여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국내 저소득 가정 생계지원을 위해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고 있는 자비나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있다. 18일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정수스님)는 네팔 구호기금 전달에 이어 2500만원을 지정 기탁하며 국내 어려운 이웃돕기에 정성을 보탰다.

이같은 성원은 아름다운동행의 발 빠른 대응과 가시적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름다운동행은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 후원금 조성과 동시에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네팔 지진 참사 직후 모금계좌를 개설해 기금을 모연하고 현지에 선발대를 파견해 현장 조사 및 구호활동을 벌이며 후원금을 즉각 현지에 조달했다. 후원자들은 기금 전달과 동시에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빠르게 알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동행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봐왔던 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후원해주시는 것 같다"며 "인지도도 많이 높아진 만큼 불교계 기부문화를 알리고 나누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메르스 확산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예방서 강조

지난 17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 종단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박 시장은 "스님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신재호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방을 받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종단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원순 시장의 예방은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활동을 설명하고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종단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다"며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메르스 극복을 위해 사찰이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보제공을 못할 때 서울시장이 먼저 대응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손발을 못 맞춘다는 말도 있었지만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조계종 스님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아직까지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며 "서울시가 시립병원과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메르스 전파 가능성을 줄였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해주길 바란다. 이같은 내용을 전국 사찰에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5차 '100인 대중공사' 연기

'사부대중 공동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결사추진본부장실에서 상임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0인 대중공사를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중공사 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5차 대중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100인 위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고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29일 5차 대중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에 진행 예정이었던 5차 대중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5차 및 6차 의제 통합 여부 및 12월 대중공사 개최 여부에 대해 회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흥룡사 특위 "토지망실문제 해결 위해 봉선사와 유기적 활동"

종회 흥룡사특위가 포천 흥룡사 토지 망실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 및 봉선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 흥룡사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교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종회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덕조스님)는 지난 1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말사인 흥룡사는 지역 개발과 관련해 전임 주지 스님들이 종단 승인 없이 불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돼왔다. 봉선사는 흥룡사 정상화를 위해 종단에 기채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제25교구 본·말사가 함께 변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흥룡사 주지 재현스님은 "지난 15일 봉선사 임시 교구종회에서 흥룡사 정상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11억원에 달한다"며 "교구종회에서 앞으로 3~4년 동안 봉선사 본·말사가 함께 변제하기로 결의하고 법적 소송도 봉선사 본사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 스님들은 본·말사가 함께 종단 재산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1억이 넘는 돈을 잘 변제할 수 있도록 감시 및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흥룡사 사례와 같이 사찰 토지 망실을 막기 위해 6월 종회 이후 교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엄태규 기자

본·말사 주지 인사
(6월18일 종무회의)

설해스님 강화 용해사 / 도성스님 홍천 지장선원 / 정휴스님 용인 장경사 / 만월스님 아산 해원사 / 경선스님 창원 의림사 / 보운스님 김해 백룡암 / 해동스님 용인 서봉사 / 도일스님 의정부 봉화정사 / 법인스님 의정부 대원사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혜일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스님〈사진〉이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에 혜일스님을 임명했다. 이번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은 선해스님이 지난 16일 공식 사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총무원은 해인사를 사고사찰로 지정하고 주지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했다. 직무대행에 임명된 혜일스님은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문중화합과 안정적인 총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승가학원 법인사무처장 원경스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인 사무처장에 서울 심곡암 주지 원경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원경스님은 현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범어사에서 사미계, 1986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미국 LA 고려사 주지,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종로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원각사 운영을 맡고 있다. 어현경 기자

불교신문 캠페인

불교신문 창간 55주년 기념 축하이벤트

1960년 1월 1일에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가 창간되어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불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이벤트 기간 내 불교신문 정기구독(법보시 후원)을 통해 의미있는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신문과 인연 맺으신 모든 불자님 댁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벤트 선물 (택1)

• 인도네시아 스님이 직접 만든 '붓다커피'

• 불교문인들의 에세이 수필집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 1권

• 불가의 비전요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산뽕잎차'

▷정기구독/법보시 후원 : 월 7,000원
▷신청문의 : ☎ 02-730-4488 전화 또는 문자